

■ 종합주가지수 뜻과 산출의 방법

종합주가지수 (=KOSPI지수, 위가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일단 계산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text{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text{기준시점의 시가총액} \times 100 = \text{종합주가지수(KOSPI)}$$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뭔가 이해가 잘 안가지죠?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총 수에 현재의 주가를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더 쉽게 설명 드려자면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각 기업들의 주식의 가격에 총합을 의미 합니다.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해 두고 당시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두고 현재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시가 총액이 2000조 이고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이 100조 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2000 / 100 \times 100 = 2000 \text{ 포인트}$$

시가총액: 기업이 발행한 주식 수 x 주가.

“실적으로 먹고 사는 코스피”

SAMSUNG

 NEXON GT

 現代



코스피(KOSPI)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시장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웬만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꿈으로 먹고 사는 코스닥”



+ 레진코믹스
2019년 상장예정



HANCOM
한글과컴퓨터

코스닥(KOSDAQ)

"코스피는 실적으로 먹고 살고 코스닥은 꿈으로 먹고 산다"
는 말 이 있 을 만 큼 코스닥 에 는 벤처 기업,
중 소 기 업 들 이 주 로 상 장 되 어 있 습 니 다.

3.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코스닥이 생겨난것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에 못미치는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에 출범한 주식 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장 참여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외에 개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합니다. 2015년 3억에서 1억으로 한차례 낮춘바 있는데 지금은 3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량이나 접근 정보 등 일반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기엔 쉽지 않아보입니다.

시장 지수는 따로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장외시장)

2005년부터 프리보드 시장으로 운영되다 2014년부터 KOTC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이 생기면서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비상장법인이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며 KOTC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코~~X~~파, 코스닥 시장의 상장과 비슷한 개념의등록,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코~~X~~파
외

Google facebook.
amazon

나스닥지수

MS,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IT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세계 2위의 증권거래소입니다.
나스닥은 코스닥 이름의 유래인데요, 역시
벤처기업, 기술주 등이 주로 상장해 있습니다.

다우 존스(Dow Jones) 지수



다우존스 지수

NYSE와 나스닥의 기업들 중 상위 30개 기업들로 이루어진 지수인데요, 가장 오래되었지만 30개 종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S&P 지수에 대표지수의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S&P 500지수

- 실질적인 대표주가지수
- NYSE와 나스닥 상장기업 중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대기업의 주가지수

S&P (스탠다드&푸어 지수)

NYSE와 나스닥의 기업 중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대기업을 추려서 만든 주가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로부터 대표지수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주가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뛰었는지 조사하는 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은 고유의 방식으로 주가지수를 계산하는데 코스피는 총점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1월 4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주식의 가격을 더했더니 1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100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의 가격을 더 한 후 이것이 과거보다 얼마나 뛰었는지 계산을 한 것이 코스피입니다.

만약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의 가격을 더했더니 20조라고 합시다. 1조를 100으로 잡았으니 20조는 20000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코스피는 200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 된 코스피를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오늘의 코스피가 20000이라면 1980년보다 주가가 평균적으로 20배가 뛰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코스피가 19000이라면 1980년보다 주가가 평균적으로 19배 뛰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코스피200(한국)

코스피200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개 주식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뛰었나 조사를 한것입니다. 물론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주식이 영원불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200의 구성종목은 매년 바뀌는데 대표선수(?) 발탁은 한국거래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한국)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주가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뛰었나 조사를 한것이 코스닥지수입니다. 코스닥지수의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1996년 7월 1일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주식의 가격을 더했더니 1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1,000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의 가격을 더 한 후" 이것이 과거보다 얼마나 뛰었는지 계산을 한 것이 코스닥지수입니다.

↑ 코스닥 지수도 '총점 방식'을 사용

만약 오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의 가격을 더했더니 5조라고 합시다. 1조를 1,000으로 잡았으니 5조는 5,000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코스닥지수는 5,0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 된 코스닥지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오늘의 코스닥지수가 5,000이라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주식의 가격이 1996년보다 평균적으로 5배가 뛰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코스닥지수 500이라면 1996년보다 평균적으로 50% 하락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우 지수는 '평균 방식'을 사용한다.

다우지수(미국)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여러 종목의 주식중에서 제일 잘나가는 30개의 종목을 평균내어서 만든 것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입니다. 달랑 30개주식의 주가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 좀 거시기 하지만 국영수를 평균이 높으면 다른 과목의 평균도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30개기업의 주가를 이용해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판단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사에서 흔히 말하는 다우지수는 바로 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